지식경제부 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'13년 2월 20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원전수출진흥과 채규남 과장(2110-3961), 한수덕 사무관(2110-5290)	

한국 원전, 남아공 진출 위한 '잰걸음'

– 2.20(수) 한–남아공 원전협력포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–

□ 지식경제부는 2.20(수) 남아공 요하네스버그(장소: 샌튼 선 호텔)에서 국내 원전산업계 인사와 남아공 정부인사 및 국영전력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, "한-남아공 원전협력포럼"을 개최할 예정임

＊(행사개요)
① 일시/장소 : 2.20(수), 09:00~16:00(현지시각)/남아공 요하네스버그
② 참석자 : 최태현 지경부 원전산업정책관(수석대표), 교과부, 한전, 한수원, 두산중공업, 한전연료, 한전E&C, 한전KPS,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,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계 인사 40여명 및 남아공 정부·산업계 인사 120여명

□ 남아공은 연내 신규원전 2기 입찰을 계획하고 있는바, 본 포럼을 통해 수주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아공 정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입찰 관련 정보를 수집할 예정임

○ 특히, 남아공의 주요 입찰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원전건설 현지인력양성 및 기자재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, 남아공 움폴로지 대학에 국내 기술자를 파견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설에 합의*하고, 우리나라가 수주에 성공하는 경우 남아공 현지업체가 원전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임

＊ 남아공 움폴로지 대학(Umfolozi University)–콰줄루나탈주 주의회–한국전력–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간 용접공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MOU 체결

○ 이를 위해 남아공 원전산업협회(NIASA, Nuclear Industry Association of South Africa)의 협조로 현지 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고, 우리 원전 산업계가 현지 업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기업인 미팅(business meeting)의 기회를 마련함

□ 최태현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관은 "남아공의 경우 향후 UAE 수준의 대규모 원전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,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의 원전건설 역량을 충분히 설명하여 원전 수주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것" 이라고 밝힘

□ 금번 포럼을 발판으로 삼아 지식경제부는 남아공 에너지부와 차관급 에너지 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고위급 교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임

□ 남아공은 2030년까지 9,600MW 규모의 신규 원전건설계획을 포함한 중기전력개발계획(IRP, Integrated Resource Plan)을 수립하였으며, 이중 3,000~3,500MW(원전 2기 해당) 규모의 원전에 대해 '13년 중 국제입찰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

○ 금번 국제입찰은 한국(한전), 프랑스(AREVA社), 미국 및 일본(웨스팅하우스+도시바), 러시아(Rosatom), 중국(광동원전그룹)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됨

○ 남아공은 1980년대 중반 950MW급 원전 2기를 프랑스로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인 아프리카 유일의 원전 보유국이며, '11년 현재 총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중은 약 5%임

< 참고 > 한–남아공 원전협력포럼 세부 프로그램

구 분	내 용	담 당
개회	○ 개회사	지식경제부 최태현 국장
	○ 축사	주 남아공 한국대사 및 남아공 에너지부
세션I	○ 남아공 원전프로그램 국산화 및 기술이전	남아공 통상산업부
	○ 남아공 원전산업 소개	남아공원전산업협회
	○ 한국의 인력양성 경험	교과부
	○ SMART 소개	한국원자력연구원
	○ 원전산업 국산화 전략	한수원
세션II	○ 보조기기의 국산화 과정	한전
	○ 설계 및 엔지니어링 국산화	KEPCO E&C
	○ 원전연료 부품 국산화	한전연료
	○ 원전기자재 제조 국산화	두산중공업
	○ 남아공 정비 인프라 발전방안	한전KPS
	○ 원전 기자재 산업 비즈니스 미팅	